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토론문

沈哲基

“역사의 대중화”라는 주제는 오랜 기간 역사학계에서 이야기되어왔던 주제이다. 역사를 몇몇 역사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역사 소비로 나타났으며, 박물관, 기념관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문가를 초청한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상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박물관, 기념관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즉, 단기간 속성으로 양성된 도슨트, 해설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지만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내용성을 청중에게 선정적이고 과도한 민족감정,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역사 소비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사콘텐츠이다.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또한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흥미 위주로 진행되면서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거나 과도한 민족주의·애국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역사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역사(Public History)’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발표자가 지적한 역사학의 위기, 사학과와 졸업생의 취업문제인 현실적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즉 역사학을 ‘아카데미 역사학(Academic History)’과 ‘공공역사학’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에서 전개해 나가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공공역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역사’를 역사학의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공역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의 제안문에도 그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제안문에는 생략하였지만 발표자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공공역사’의 개념과 주요 내용

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역사’에 대한 개념 정리는 기존 역사학계의 인식 전환과 역사학계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자와 ‘공공역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학예사, 작가, 교사 등 ‘공공역사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공공역사’, ‘공공역사가’가 생각하는 ‘공공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찾는 것은 향후 ‘공공역사’를 정착시키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역사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과 발표자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을 위해서 추진해할 핵심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역사’는 추후 학문영역으로 들어가 ‘공공역사학’이 될 수 있는지, 학문영역이 된다면 역사학, ‘공공역사학’, ‘공공역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대학에서 ‘공공역사’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